

《古今譚概·迂腐部》의 翻譯과 註解

김 숙 향*

<목 차>

1. 《고금담개》 소개
 - 1.1 풍몽룡과 서명
 - 1.2 주요 체재
2. <迂腐部>, 1편-10편
3. 나가며

1. 《고금담개》 소개

1.1 풍몽룡과 서명

《고금담개》는 明代 文學家 馮夢龍(1574-1646)이 편찬하였다. 풍몽룡의 字는 猶龍, 耳猶, 子猶이고, 號는 龍子猶, 茂苑外史, 姑蘇詞奴, 墨憨齋主人 등이 다. 蘇州府 長洲縣(지금의 江蘇 蘇州) 출신으로, 사대부 집안에서 태어났다. 풍몽룡은 중국 문학 가운데 소설, 희곡, 민가, 소화와 같은 민간문학의 수집과 정리, 창작과 비평에 큰 성취를 남겼다. 비교적 늦은 나이인 57세(崇禎 3년, 1630)에 貢生이 되었고 4년 뒤에 福建 壽寧의 知縣이 되었다가 다시 4년 뒤에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늦은 나이에 관리가 되었기에 젊은 시절을 문학 활동에 쏟아부었다.

* 가천대학교 동양어문학과(sufaye@hanmail.net)

풍몽룡은 민간문학으로 잘 알려진 인물이지만 사실 그의 문학 활동은 詩詞를 비롯한 여러 장르와 經典과 史書와 같은 고대 전적을 아우른다. 풍몽룡의 소화집으로 알려진 《고금담개》와 《笑府》가¹⁾ 바로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관여했던 풍몽룡의 문학 재능이 잘 반영된 결과물이다. 먼저 편찬된 《소부》는 주로 민간에 구전되던 소화를 채록하여 집대성한 것이고, 《고금담개》는 역사서와 稗官野史, 필기 등에서 이야기를 인용하여 편찬한 책이다. 이 두 권의 소화서는 주제별, 성격별로 분류하였고 원래의 이야기에 풍몽룡이 편집과 가공을 하여 짧고 간결한 문장으로 만들어 수록하였다. 또한 권점을 표시하고 비평어를 삽입하는 評點의 방식으로 비평하였다. 체제가 유사하지만 내용의 출처가 상이한 두 소화서는 풍몽룡의 소화서 연구에 중요한 저작이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니라 풍몽룡의 창작관과 문학관, 그리고 편집과 출판에 이르는 풍몽룡 문학 활동의 전반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저작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풍몽룡의 소화서 편찬은 다른 저술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소부》의 경우 많지는 않지만 국내에서 연구성과가 나왔고 최근에는 번역서도 출간되었다.²⁾ 그러나 《고금담개》는 국내 연구가 전무하다. 또한 국내외를 막론하고 《고금담개》는 풍몽룡 연구에 있어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 텍스트다. 이에 본고에서 《고금담개》 연구와 번역을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로 첫 번째 편인 <迂腐>를 번역하고자 한다. 본편은 고지식하고 진부한 관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모았다.

1) 풍몽룡의 저작으로 알려진 《廣笑府》는 풍몽룡이 편집하거나 창작한 것이 아니라 서적상인들이 편집하여 간행한 책이다. 즉 上海 中央書店發行署에서 墨慈齋主人 著作, 沈亞公 校訂으로 출간된 《광소부》는 明代 樂天大笑生의 소화서 《解慍編》과 《소부》를 묶어 제목을 《광소부》로 편찬한 것이다. 高洪鈞의 논문 <馮夢龍의俗文學著作及其編年>(天津師大學報(社會科學版), 1997)과 祝普文, <廣笑府作者不是馮夢龍>(《吉林藝術學院學報》, 1993) 참조.

2) 《소부》의 국내연구는 이재은, 《〈笑府〉와 《笑林廣記》 비교 연구》(명지대학교 碩士學位論文, 2012), 張美卿, 《憑夢龍의 《笑府》研究》(成均館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0), 張美卿, <馮夢龍의 《笑府》一考>(《中國學論叢》 Vol.7, 1998)가 있다. 또한 본고를 마무리하던 시기에 풍몽룡 《소부》의 한국어 번역본 《세상은 큰 웃음 집: 소부》(서울: 차이나하우스, 2020)가 출간되었다. 2020년 5월에 《소부》를 연구해오신 장미경 선생님의 번역이었다. 본고를 발표하기 전에 참고하고 싶었으나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목록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시중에서 구할 수 없어 아쉽게도 보지 못하였다.

《고금담개》는 《소부》만큼 소화서로서³⁾ 상당히 가치 있는 저작이다. 《고금담개》의 가치는 무엇보다 원전이 남아있지 않는 저술의 일부가 수록되었다는 점에서 문헌적인 가치가 높다. 또한 《고금담개》에 수록된 조목의 편집양상을 통해 풍몽룡의 문학과 역사, 인물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읽어낼 수 있다. 아울러 각 조목의 마지막에 수록한 총평에서 풍몽룡의 비평관과 비평방식, 그리고 명나라 말기 사회의 분위기와 풍습을 파악하기에 좋은 자료이다. 또한 《고금담개》는 명청시대 소화서 발전에 있어서도 웃음의 성격과 소화의 내면을 확장시켰다는 점에서도 연구의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고금담개》의 번역은 국내 풍몽룡 연구와 명청시기 소화연구뿐 아니라 한국의 소화연구에도 초보적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으로 번역에 앞서 《고금담개》의 복잡한 서명의 문제를 간단히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고금담개》는 《古今笑》·《古今笑史》·《古笑史》·《譚概》·《笑史》와 같이 여러 가지 서명으로 알려져있다. 명말의 희곡 작가 李漁(1611-1679)는 《고금담개》를 편집한 《고금소사》의 서문에서 서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책에 모은 것은 馮子猶龍(풍몽룡)에서 나왔는데, 처음에는 서명은 《譚概》였다. 그런데 후세 사람들이 그 책에 망라된 일들이 전부 해학에 속하여 정색하고 이야기를 하면 백에 하나도 건질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이야기 모음’이라 이름 지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웃음 창고이니, 또 어찌 그 면모가 질박하고 그 내용이 아름답겠는가? 이에 《고금소》라 이름을 바꾸고 당시의 유행을 따랐다. …… 같은 책인데 처음 서명을 《담개》라고 하니 묻는 자가 적어서 《고금소》로 바꾼 것이다. …… 石鐘이 문기를, “…… 전하였을 뿐 창작하지 않았으니 고사古史입니다. 한 글자를 더하여 《古今笑史》라 한다면 사족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까요?”라고 하자 내가 “좋습니다. 예로부터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뻐서 웃고 화나서 욕하는 것 모두 문장이 된다고 말입니다. 이 책은 다른 것이 아니고 모두 고금古今의 절묘한 문장입니다. 단지 화나서 욕하는 것만 빼버렸을 뿐이니 이름 하여 《笑史》라 하는 걸 누가 마땅하지 않다고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⁴⁾

3) 《고금담개》를 소화서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후속 논문인 <馮夢龍《古今譚概》一考>에서 상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이어에 의하면 《고금담개》는 원래 《담개》였으나 내용과 제목이 어울리지 않았고 또 판매도 부진하여 《고금소》로 서명을 바꾼 것이다. 《고금소》는 明 萬曆 48년(1620)에 출간하였는데 풍몽룡은 직접 서문을 적고 수록하였다.⁵⁾ 이후 淸 康熙 6년(1667)에 朱石鍾, 朱姜玉, 朱宮聲, 삼형제가 원서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편집하여 《古今笑史》라는 서명으로 출간하였다.⁶⁾ 이때 이어가 서문을 적어 주었고 그 서문에서 《소사》라는 서명을 추가로 언급하였다. 이후로 《고금담개》는 간행하는 이에 따라, 편집하는 이에 따라, 부르는 이에 따라 원하는 대로 줄이고 붙이면서 다양하게 사용되었다.⁷⁾

《고금담개》라는 서명으로 나온 가장 이른 판본은 명말 蘇州 閶門의 서적상인 葉昆池가 출간한 36권본이다. 《蘇州府志》나 《嘉慶黎里志》 등에 수록된 《고금담개》는 일부가 빠진 34권본도 있다. 《고금소》는 풍몽룡이 직접 간행한 36권본의 墨愍齋 각본이 가장 이른 것이다. 현재 출판되고 있는 《고금담개》는 대부분 섭곤지와 목감재 본을 저본으로 하여 교감한 것이다.

-
- 4) 《馮夢龍集箋注·古今笑史序》: 是編之輯, 出於馮子猶龍, 其初名爲《譚概》, 後人謂其網羅之事, 盡屬談諧, 求爲正色而談者, 百不得一, 名爲譚概, 而實則笑府, 亦何渾樸其貌而豔冶其中乎? 遂以《古今笑》易名, 從時好也. …… 同一書也, 始名譚概, 而問者寥寥, 易名古今笑 …… 石鐘曰: “…… 述而不作, 仍古史也, 試增一詞爲《古今笑史》, 能免蛇足之譏否乎? 予曰: “善, 古不云乎: ‘嬉笑怒罵, 皆成文章.’ 是集非他皆古今絕妙文章, 但去其怒罵者而已, 命曰《笑史》, 誰曰不宜?”
- 5) 《馮夢龍集箋注·自敘》에 보면, ‘於是乎集《古今笑》三十六卷’이라 하였고 가장 마지막에 ‘庚申春朝書於墨愍齋’라고 적었다. 庚申 봄은 明 萬曆 48년(1620)이다.
- 6) 청대 주씨 형제들의 간행본이 나오기 전, 《고금소》라는 서명으로 유통되었음은 명말의 희곡작가 沈自晉(1583-1665)이 淸 順治 初년에 간행한 《南詞新譜》卷十六에 풍몽룡의 《고금소》에 대한 언급으로 알 수 있다.
- 7) 《고금담개》와 《고금소》의 전후 관계, 간행된 서명의 유래, 그리고 이후 출간된 여러 편집본의 문제들은 매우 복잡하다. 李漁의 서문에서 《담개》가 첫 번째 서명이라고 하였지만 현대의 연구자들은 오히려 이어와 정반대의 의견, 즉 《고금소》가 첫 번째 서명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런데 연구자마다 주장하는 바와 근거가 저마다 다르고 내세운 주장에도 변수가 존재하여 확실히 논하기가 어렵다. 이로 인해 《고금담개》의 서명과 판본에 대한 이해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졌다. 이러한 논의들을 종합하여 정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는 후속연구인 <馮夢龍《古今譚概》一考>에서 진행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이어의 서문을 바탕으로 《고금담개》의 서명과 판본을 이해하고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1.2 주요 체재

《고금담개》는 전체 36권으로 권마다 주제에 따른 제목이 붙어 있다. 아래의 표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順次	部題	順次	部題	順次	部題	順次	部題
1	迂腐	11	佻達	21	譎智	31	口碑
2	怪誕	12	矜慢	22	儂弄	32	靈跡
3	癡絶	13	貧儉	23	機警	33	荒唐
4	專愚	14	汰侈	24	酬嘲	34	妖異
5	謬誤	15	貪穢	25	塞語	35	非族
6	無術	16	鷙忍	26	雅浪	36	雜誌
7	苦海	17	容悅	27	文戲		
8	不韻	18	顏甲	28	巧言		
9	癖嗜	19	閨誠	29	談資		
10	越情	20	委蛻	30	微詞		

이상의 36부는 시작할 때마다 서문의 성격을 가진 짧은 글⁸⁾을 수록하여 해당 부에 대한 특징과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수록된 조목은 원전의 주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풍몽룡의 가공과 편집을 거치며 더욱 간결한 문장이 되었다. 또한 비평을 통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풍몽룡의 견해를 밝혔는데, 원전의 주제나 사상, 인물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진 경우도 있다. 이러한 비평의 방식은 評點을 통해 구현하였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조목의 중간에 짧고 간단한 감상을 적은 挾批를 달았고 마지막에는 전체 내용을 비평하는 總批를 덧붙였다. 인명은 긴 줄을 그었고 본문에서 제목이 포함되어 있거나 핵심이 되는 구절, 혹은 강조해야 할 부분에는 빈 원형 구두점으로 표기하였다. 이러한 평점 방식을 《고금담개》의 모든 작품에 일괄적으

8) 이 서문의 성격을 가진 글은 내용만 있고 문장의 전후로 제목이나 글의 성격을 나타내는 표시가 따로 없다. 이에 편이상 小序로 칭한다.

로 적용한 것은 아니고 필요할 때 부분적으로 사용하였다. 이 가운데 총비의 활용이 가장 많았다. 총비는 함축적이고 풍자성이 강하며 웃음을 유발하거나 교훈을 준다. 이에 독자들은 풍몽룡의 평어를 읽고 나서 원문에 대한 내용을 곧바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곱씹고 되새겨 생각해보게 된다. 함축적인 평어를 이해하기 위해 독자들은 《고금담개》를 읽으며 자신만의 감상 공간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다.

본고는 中華書局에서 출판된 《고금담개》를 기본 텍스트로 삼아 번역을 진행하였다. 이 텍스트는 2007년의 셉곤지 각본을 저본으로 하고 周作人(1885-1966)이 소장한 《고금소》를 비롯 각종 판본을 비교한 것인데, 2018년에 잘못된 부분을 다시 수정하고 교정자 欒保群의 평어를 추가하여 다시 출판한 것이다. 전체 36부로 1853편의 제목 아래 2400조목의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다.

번역은 가능한 원문에 충실한 직역을 주로 하였으나, 소화라는 장르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최대한 자연스럽고 간결하게 옮기도록 노력하였다. 지금까지 국내 풍몽룡 작품의 번역은 소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최근 《소부》가 번역되어 풍몽룡의 소화서 번역의 출발을 알렸다. 본고에서 《고금담개》의 번역으로 그 활기를 이어가고자 한다. 본고를 시작으로 《고금담개》의 완역을 목표로 삼아 번역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아울러 수록된 문장과 관련된 정보를 비롯하여 인용한 원문, 원전과 다른 기록, 인명과 관직명 및 역사기록과 사실관계, 오기 등을 주석을 통해 상세하게 제시하여 학술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2. <迂腐部>, 1편-10편

www.kci.go.kr

자유子猶가 말하였다.⁹⁾ 천하의 일이 호탕한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는

도리어 적었고 고지식한 사람에 의해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어째서인가? 호탕한 사람은 설령 소홀해서 빠트릴 수 있으나 남으로 만든 무딘 칼처럼 한 번은 자를 힘이 있는 것과 같다. 고지식한 사람은 먼지를 밥, 진흙을 국과 같은 존재일 따름인데, 저들은 또 스스로 학문이 있고, 지킴이 있으며, 견식이 있고, 격식이 있다고 여긴다. 저들을 등지면 사악하다 하고 저들을 배척하면 비방해 나약한 병든 천하를 만들어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깨닫지 못한다. 슬프다.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승상丞相 병길丙吉과 사마온 司馬溫公은 본디 뛰어난 현인賢人인데, 여기서서는 단지 고지식한 일 한 가지를 골라 적었을 뿐이다. 양백란梁伯鸞과 정이천程伊川과 같은 경우 이미 심각함을 면할 수 없어 내가 여기에 함께 언급하여 후학들의 시야를 크게 넓혀주고 대업을 이루도록 하고자 한 것으로, 감히 사악하다고 여기거나 비방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에 여기에 <迂腐>를 첫 번째로 모았다.

子猶曰：天下事，被豪爽人決裂者尙少，被迂腐人擔誤者最多。何也？豪爽人縱有疏略，譬諸鉛刀雖鈍，尙賴一割¹⁰⁾。迂腐則塵飯土羹¹¹⁾而已，而彼且自以爲有學，有守，有識，有體，背之者爲邪，斥之者爲謗，養成一個性病天下，以至於不可復而猶不悟。哀哉！雖然，丙相¹²⁾，溫公¹³⁾自是大賢，特摘其一事之迂耳。至如梁伯

9) 子猶는 풍몽룡의 字이다. 이 글은 迂腐部의 처음에 수록되어 있는데 《고금담개》 전체部に 모두 이런 서문과 같은 문장이 수록되어 있다. 대체로 해당 부의 특징과 편찬 의도를 밝혀놓았다.

10) 이 구절은 《後漢書》 권77 <班超傳>에서 인용한 것으로, 반초가 서역의 여러 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조정에 병사를 요구하며 올린 글이다. “옛날에 魏絳은 列國의 대부였는데 여러 戎族을 모아 안정시킬 수 있었습시다. 하물며 臣은 大漢의 위엄을 받들고 가는 터에 무딘 칼로 한 번 베는 쓸모도 없겠습니까?(昔魏絳列國大夫，尙能和輯諸戎，況臣奉大漢之威，而無鉛刀一割之用乎?)”

11) 塵飯土羹: 이 말은 《韓非子·外儲說左上》에서 인용하였다. “무릇 아이와 함께 놀 때는 흙을 밥으로 삼고 진흙을 국으로 삼으며 나무로 고기를 삼는다. 그런데 날이 저물면 반드시 돌아가 밥을 먹는 까닭은 흙으로 만든 밥과 진흙으로 만든 국을 가지고 놀 수는 있어도 먹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夫嬰兒相與戲也，以塵爲飯，以塗爲羹，以木爲葷。然至日晚必歸餉者，塵飯塗羹，可以戲而不可食也.)”

12) 丙相: 병상은 丞相 丙吉(?-기원전55)을 말한다. 병길은 西漢의 名臣으로, 字는 少卿이고 魯 나라 출신이다. 어려서부터 법률을 공부하여 처음 맡았던 벼슬이 獄吏였으나 후에 廷尉右監, 太子太傅, 御史大夫를 거쳐 宣帝 때 丞相의 자리에 올랐다 <迂腐部>의 첫 번째 편

鸞¹⁴⁾, 程伊川¹⁵⁾所爲, 未免已甚, 吾并及之, 正欲後學大開眼孔, 好做事業, 非敢爲邪爲謗也. 集迂腐第一.

2.1 <소에 대해 묻다>¹⁶⁾

병길丙吉이 승상丞相을 지낼 때 한 번은 외출을 했다가 길에서 패싸움을 벌이던 사람들이 죽고 다쳐서 길에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고도 지나면서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곳을 지난 뒤 어떤 사람이 소를 몰고 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인 <問牛>에 나온다.

- 13) 溫公: 온공은 司馬光(1019-1086)을 말한다. 사마광의 字는 君實이고 號는 迂叟이다. 陝州 夏縣(지금의 山西 夏縣) 출신으로 北宋 시기의 문인이다. 宋 仁宗 寶元 원년(1038)에 進士에 급제하면서 관리가 되었고 神宗 때 王安石의 變法에 반대하여 15년간 조정을 떠나있었다. 사마광은 編年體 역사서 《資治通鑑》 편찬으로 유명하며 사후 太師溫國公으로 추증되어 온공 혹은 온국공으로 불린다. <迂腐部>에서 사마광은 <拱手對妾>에서 볼 수 있다.
- 14) 梁伯鸞: 양백란은 東漢의 詩人 梁鴻(?-?)으로, 字가 伯鸞이다. 扶風 平陵(지금의 陝西 咸陽) 출신으로 어려서 부모를 잃고 가난하게 성장하였다. 절개가 높은 隱士로 알려져 있다.
- 15) 程伊川: 정이천은 程頤(1033-1107)이다. 정이의 字는 正叔이고 號가 伊川이며 河南 洛陽 출신이다. 北宋의 학자로 형 程顥와 함께 周敦頤에게 수학하여 세간에는 두 형제를 二程子라 불렀다. 程朱學의 창시자로 《易傳》, 《周易程氏傳》, 《遺書》 등을 남겼다.
- 16) 이 이야기는 《漢書》 卷七十四 <魏相丙吉傳>에서 볼 수 있다. “병길이 일찍이 밖에 나갔는데 길을 청소하는 무리가 다두다 상처를 입고 죽어 길에 가로누워 있었다. 병길이 지나가며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掾吏가 혼자 그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병길은 다시 앞으로 가다가 소를 몰고 가는 이를 만났는데 소가 혀를 내밀고 핏떡였다. 병길이 수레를 멈추고 말을 부리는 관리에게 묻기를, “소를 몇 리나 몰고 갔더니?”라고 하자 연리가 혼잣말로 승상의 질문은 진후가 잘못되었다고 하며 병길을 나무랐다. 병길은 “백성들이 싸우다 서로를 죽이고 다치게 하는 건 長安令과 京兆尹이 맡은 일로 마땅히 타이하고 대비하며 쫓고 체포해야 한다. 승상은 연말에 관리들의 성과를 가려 상벌을 주청할 뿐이다. 재상은 작은 일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 길에서 일어난 일을 묻지 않는 건 마땅하다. 바야흐로 봄이라 少陽의 기가 발동하는 계절에 일을 하는데 지나치게 덥지 않은데 소가 가까운 거리를 가는 것도 두려워 더위에 핏떡이니 이는 기후가 계절을 벗어난 것으로 상하고 해할까 걱정이다.三公은 음양을 조화시키는 일을 맡았으니 직분상 마땅히 근심해야 하여 그런 까닭에 묻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에 연리가 병길이 大體를 아는 것에 탄복하였다. (吉又嘗出, 逢清道群鬪者, 死傷橫道, 吉過之不問, 掾史獨怪之. 吉前行, 逢人逐牛, 牛喘吐舌, 吉止駐, 使騎吏問: “逐牛行幾里矣?”掾史獨謂丞相前後失問, 或以譏吉, 吉曰: “民鬪相殺傷, 長安令, 京兆尹職所當禁備逐捕, 歲竟丞相課其殿最, 奏行賞罰而已. 宰相不親小事, 非所當於道路問也. 方春少陽用事, 未可大熱, 恐牛近行用暑故喘, 此時氣失節, 恐有所傷害也. 三公典調和陰陽, 職當憂, 是以問之.”掾史乃服, 以吉知大體.)”

소가 혀를 내밀고 혈떡이자 병길이 가던 길을 멈추고 말을 끌던 관리에게 물어 보게 하였다. “소를 몇 리나 몰고 갔더냐?” 하자, 연리掾吏가 승상의 질문 순서가 잘못되었다고 하였다. 그러자 병길이 이렇게 말하였다. “백성들이 싸우다 서로 상처를 입히고 죽이는 건 장안령長安令과 경조윤京兆尹이 맡은 일로, 마땅히 타이르고 대비하며 쫓아가 체포해야 한다. 연말에 승상은 그들의 고과를 매겨 상벌을 주청할 뿐이다. 재상은 본디 작은 일을 직접 관여하지 않으니 길에서 일어난 일을 묻는 건 마땅한 일이 아니다. 바야흐로 때는 봄이라 소양少揚의 기운이 발동하는 시기에 일을 함에 지나치게 덥지 않는데 소가 가까운 거리를 가는 것도 두려워하며 여름에 일을 하는 것처럼 숨을 혈떡였으니, 이는 사계절의 기후가 절기를 잃은 것이라 상해가 있을까 걱정하여 그런 것이다. 삼공三公은 음양의 조화를 관장하는 사람이라 직분상 걱정하는 게 당연하니 이러한 까닭에 소에 대해 묻은 것이다.”

[풍몽롱 평어]

[상처입고 죽은 사람이 길에 널브러져 있는데 음양의 조화와 관계없다며 오로지 가축의 숨소리만을 신경쓰니 고지식하기가 이보다 심할 수 없다. 친구가 나를 힐난하며 “실로 그대의 말과 같다면 한漢 나라 사람들이 어찌 병길이 대체大體를 안다고 했겠는가?”라고 하니 내가 답하길 “소의 몸체가 사람보다 크지 않소?”라고 하여 친구가 크게 웃었다.]

<問牛>

丙吉¹⁷⁾爲丞相，嘗出，逢鬪者，死傷橫道。吉過之不問。已而逢人逐牛，牛喘吐舌，吉止駐，使騎吏問：“逐牛行幾里矣？掾吏¹⁸⁾謂丞相前後失問。吉曰：“民鬪相殺傷，長安令，京兆尹¹⁹⁾職所當禁備逐捕，歲竟，丞相課其殿最，奏行賞罰而已。宰相

17) 丙吉: 앞의 11번 주석 참조.

18) 掾吏: 관청에서 벼슬아치의 일을 돕는 하급 관리이다.

19) 京兆尹: 漢代 설치된 관직으로, 三輔의 하나이다. 삼보는 京畿 지역을 다스리는 세 명의 관리, 즉 京兆尹, 左馮翊, 右扶風을 말한다. 경조윤은 지금의 西安 일대를 담당하였다.

不親小事，非所當於道路間也。方春，少陽用事，未可太熱，恐牛近行，用暑故喘，此時氣失節，恐有傷害。三公²⁰⁾典調陰陽，職所當憂，是以問之。

[評]

[死傷橫道，反不干陰陽之和，而專討畜生口氣，迂腐莫甚於此。友人詰余曰：“誠如子言，漢人何以吉爲知大體？余應曰：“牛體不大於人耶？”友人大笑。]

2.2 <나귀 내쫓는 재상>²¹⁾

왕급선王及善은 재주와 행실이 평범하고 천박한 자인데 내사內史가 되자, 세간에서 ‘구집봉지(鳩集鳳池, 비둘기가 봉황의 연못에 모였다)’라 하였다. 갑자기 우상右相이 되어 별달리 시행할 계책이 없자 그저 유일하게 내놓은 것이, 말단 관리들이 나귀를 타고 관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 온종일 그들을 쫓아내느라 바빴다. 그리하여 세간에서는 그를 ‘나귀 내쫓는 재상驅驢宰相’이라고 불렀다.

[풍몽롱 평어]

[나귀를 관청에서 내쫓는 일이야말로 재상의 품격을 보존하는 일이다.]

<驅驢宰相>

王及善²²⁾才行庸鄙，爲內史²³⁾，時謂鳩集鳳池。²⁴⁾ 俄遷右相²⁵⁾，無他施設，惟

20) 三公: 삼공은 周나라의 太師, 太傅, 太保를 통칭하는 말이다. 주나라 궁정에 회화나무 세 그루를 심고 세 관직을 맡은 이가 나무를 향해 앉았다는 데서 전해졌다. 한나라의 삼공은 행정을 담당하는 丞相, 군사를 담당하는 太尉, 감찰을 담당하는 御史大夫를 말한다.

21) 이 이야기는 唐 張鷟(660-740)의 《朝野僉載》 卷四에 수록되어 있다. 《조야첨재》는 총 6권으로, 隋唐 시기 조정과 재야에 전해졌던 일화를 기록하였다. 특히 武則天 때 조정에 대한 풍자가 많이 수록되어 있다. “唐 王及善은 재주와 행실이 평범하고 외람되었으며 기풍도 둔탁하였는데, 內史가 되자 사람들은 ‘비둘기가 봉황의 연못에 모였다.’고 하였다. 갑자기 문장우상이 되자 별다른 정책이 없었다. 단지 舍史들이 관청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하루 종일 내쫓는데 잠시도 쉬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귀를 내쫓는 재상’이라 불렀다.(唐王及善才行庸猥，風神鈍濁，爲內史時，人號爲‘鳩集鳳池’。俄遷文昌右相，無他政，但不許舍史之驢入臺，終日迫逐，無時暫舍。時人號爲‘驅驢宰相’.)”

不許令史²⁶⁾輩將驢入臺，終日驅逐。時號驅驢宰相。

[評]

[驅驢出堂，正存相體.]

2.3 <머리카락을 탄핵한 어사²⁷⁾>

송宋 어사대御史臺의 의법에 따르면 어사가 되면 상소를 올려야 하는데, 백 일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 외관外官으로 쫓겨났다. 왕평王平이란 자는 어사로 명을 받고 백 일이 다 되었는데도 잘못된 일을 고하지 않았다. 동료들이

-
- 22) 王及善: 왕급선(618-699)은 武則天 때 文昌右相을 지냈고 唐 高宗 때 禮部尙書에까지 올랐다. 洺州 邯鄲(지금의 河北 邯鄲) 사람으로, 사후에 시호는 貞이었다.
- 23) 內史: 내사는 周나라 때부터 이어진 관직으로, 황제의 측근에서 명령을 받들고 조언을 하는 관직이었다. 秦나라 때는 수도를 관할하는 관리를 내사라 하였는데, 후대의 京兆尹에 해당한다. 西漢 때는 제후국의 민정을 담당하는 관리를 일컬었으며 隋 煬帝 때는 여러 군에 通守를 두어 太守의 부속으로 삼았는데, 京兆·河南을 내사라 하였다. 그 후 唐 高宗 때 中書省을 內史省으로 고치면서 중서령을 내사령으로 바꾸었고, 중서성의 長官인 中書令을 右相이라 하였다. 이후 무측천 때 다시 內史로 바꾸었는데, 宰相에 상당하는 직책이었다.
- 24) 鳳池는 봉황의 연못, 즉 鳳凰池이다. 중서성은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며 황제와 가까이 때문에 魏晉 때부터 사람들이 중서성을 봉황지라 불렀다. 이후 중서성과 같은 중요한 부서를 봉황지라 하였다.
- 25) 右相: 內史를 말한다.
- 26) 令史: 唐代에는 尙書省, 中書省, 門下省에 모두 영사나 書令史와 같은 관직을 두었다. 영사는 사관에 속하였고 품급이 낮은 관리로 충원하였다.
- 27) 이 이야기는 《宋朝事實類苑》 권70 <왕평>에서 볼 수 있다. 《송조사실류원》은 江少虞(?-?)가 편찬한 史料集으로 원명은 《事實類苑》으로 총 78권이며 北宋 太祖부터 神宗까지 120여 년 간의 역사기록을 수록하였다. “어사대의 의법에 따르면 무릇 어사는 일을 고해야 하는데 백일동안 말이 없으면 外官으로 쫓겨났다. 侍御史 王平이 명을 받고 백일이 다 지나도록 일을 고하지 않자 동료들이 모두 의아해하였다. 혹자가 말하길, “단공은 기다린 뒤에 움직이시니 만일 말씀을 하신다면 필시 큰일일 것이오.”라고 하였다. 하루는 상소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들리자 사람들이 함께 보러 갔다. 그런데 수라 속에 머리카락을 규탄하길, “어찌 공손한 모습으로 수라를 드시려는데 갑자기 머리카락 같은 형상이 보인다. 단공은 입을 막고, ”라고 하였다. (御史臺儀, 凡御史上事, 一百日不言, 罷爲外官. 有侍御史王平拜命垂滿百日, 而未言事, 同寮皆訝之. 或曰: “端公有待而發, 苟言之, 必大事也.”一日, 聞入札子, 衆共偵之, 乃彈御膳中有髮. 其彈詞曰: “是何穆若之容, 忽睹髮如之狀.”)

이상하게 여기자, 흑자가 “왕단공王端公은 기다린 뒤에 말을 하니, 그가 말하면 필시 큰일이다.”라고 하였다. 하루는 상소가 올라왔다는 소문이 들려 사람들 함께 엿보러 갔는데, 수라 속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규탄하였다. 그 말인즉, “은화한 모습으로 수라를 드시려는데 어찌 머리카락 같은 것이 보인단 말입니까?”라고 하였다.

[풍몽룡 평어]

[군왕의 옥체를 이리 보호하니 누가 그보다 더 큰 충신이겠는가? 이는 병길丙吉을 배운 모양이다.]

<彈髮御史>

宋御史臺²⁸⁾儀, 凡御史上事, 一百日不言, 罷爲外官. 有王平, 拜命, 垂滿百日, 而未言事. 同僚訝之, 或曰, “王端公²⁹⁾有待而發, 必大事也.” 一日聞進筍子, 衆共偵之, 乃彈御膳中有髮. 其彈詞曰, “是何穆若之容, 忽覩鬢如之狀.”

[評]

[王躬是保, 忠孰大焉, 是學丙吉樣子.]

2.4. <아압간의>³⁰⁾

고종高宗 때 황문黃門이 간언하길, “근래에 도축을 금함에 돼지와 양만 금하

28) 御史臺: 어사대는 東漢시기부터 元朝까지 설치되었던 중앙감찰기구이다. 秦漢 시기 어사는 감찰업무를 맡았는데 주로 時政을 논하고, 풍속을 교정하며, 백관을 규찰하고, 탄핵하는 일을 맡았다. 어사들이 근무하던 곳을 御史府 혹은 憲臺라 하였고 南朝 梁陳 때부터 御史臺라 하였다.

29) 端公: 단공은 唐代 侍御史에 대한 별칭이었고 宋代에는 관리에 대한 별칭으로 사용하였다.

30) 이 이야기는 《鶴林玉露》 권6<擒虎尋龍>에서 볼 수 있다. “紹興 乙卯에 가뭄이 들어 비를 기원하였다. 諫議大夫 趙鼎이 상소를 올려 말하길, ‘예부터 기원함에 돼지와 양의 도축

였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성덕이 지극하니 거위와 오리도 의당 함께 금지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때마침 금나라 오랑캐가 남침했는데 적군에 ‘용호대왕龍虎大王’이라는 자가 대단히 용맹스럽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호하시랑侍郎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아압간의鵝鴨諫議가 있으니 충분히 대적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풍몽롱 평어]

[우리 명조明朝에도 ‘하마급사(蝦蟆給事, 두꺼비급사)’라 불리는 자가 있으니, 대체로 이런 부류이다.]

<鵝鴨諫議>

高宗朝³¹⁾, 黃門³²⁾建言: “近來禁屠, 止禁豬羊, 聖德好生, 宜并禁鵝鴨.” 適報金虜³³⁾南侵, 賊中有龍虎大王者甚勇. 胡侍郎云: “不足慮! 此有鵝鴨諫議³⁴⁾, 足以當之.”

[評]

[我朝亦有號蝦蟆給事³⁵⁾者, 大類此.]

을 금하였으나 오늘 이후로 거위와 오리도 함께 금해야 합니다.’라 하였다. 당시 胡致堂이 西掖을 맡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웃으며 “鵝鴨諫議라 할 만하구나. 듣자 하니 오랑캐에도 龍虎大王이 있다니 아압간의에게 청하여 그와 대적하면 되겠다.’라 하였다. (紹興乙卯, 以旱禱雨, 諫議大夫趙霈上言: ‘自來祈禱, 斷屠止禁豬羊, 今後請並禁鵝鴨.’ 時胡致堂在西掖, 見之笑曰: ‘可謂鵝鴨諫議矣, 聞虜中有龍虎大王, 請以鵝鴨諫議當之.’) ”

- 31) 高宗朝: 南宋 高宗 趙構(1107-1187)의 집권시기를 말한다.
- 32) 黃門: 황문은 黃門侍郎 또는 黃門郎이라고 하며 秦代에 처음 설치되었다. 황제의 곁에서 시중을 듣거나 문서를 전달하는 등 황궁의 제반 사무를 맡은 관리를 말한다. 본문에서 황문은 給事黃門侍郎을 말하며 諫議官에 속한다.
- 33) 金虜: 金朝를 낮춰 부르는 말이다.
- 34) 諫議: 간의는 諫議大夫로, 秦代에 처음 설치되었다. 주로 천자의 곁에서 간언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 35) 給事: 給사는 관직명으로 給事中을 말한다. 秦漢때 처음 설치되어 천자의 주위에서 보좌하며 奏事를 담당하였다. 隋唐 때는 門下省에 속하여 詔勅과 上奏 문서를 심사하였고 明代에는 六科給事中으로, 황제에게 간언하며 六部의 사무를 감찰하였다. 蝦蟆給事는 明 胡汝寧(?-?)을 우스개로 부르는 호칭이다. 호여녕은 江西 南昌 출신으로, 萬曆 2년(1574)에 進

2.5. < 성화成化, 홍치弘治, 가정嘉靖 연간의 건언 >³⁶⁾

성화成化 연간에 한 어사御史가 사물이 이치를 살피 건의하길 “수도 가까운 곳에 수레를 끄는 노역에 노새와 나귀가 뒤섞여 있습니다. 노새는 천성이 빠르고 힘이 세나 나귀는 천성이 느리고 힘이 약합니다. 그런데 지금 노새와 나귀가 함께 수레를 끌고 있는데 이는 이치에 맞지 않으니, 이를 분리하여 바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홍치弘治 초년에 한 급사給事가 군대를 배치하는 일에 관해 건의하길, “수도 안에 사인士인들이 말꼬리로 만든 속치마 입기를 좋아하여 사람들이 관마의 갈기와 꼬리를 훔칩니다. 군국軍國의 큰 계획에 차질이 있으니 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가정嘉靖 초년에 한 원외랑員外郎이 절약을 숭상하여 풍속을 변화시키자고 건의하였는데, 오로지 찻집과 밥집에서 만든, 술상에 올리는 전병만을 논하였다. “전병이 크면 공력은 아꼈으나 재료를 낭비한 것이고, 전병이 작으면 재료는 적게 들었으나 공력을 낭비한 것입니다. 고정된 모양을 정하여 공력과 재료의 간극을 줄이는 데 힘써 인심 후한 세상을 만드시길 바라옵니다.”라고 하였다.

[풍몽룡 평어]

[매우 짧은 문장인데 억지로 큰 제목에 붙였구나. 고기를 먹는 이들은 안목이 짧다더니, 참으로 그러하다.]

士가 되었고 禮科 給事中으로 발탁되었다. 가뭄이 오래되자 조정에서 비가 내리기를 기원하며 도축을 금지시켰는데 호여녕이 거북이 포획을 금지하자는 주청을 올렸다. 湯顯祖가 이 일에 대해 평하며 호여녕을 ‘하마급사’라고 희롱하였다. 이 일은 明 沈德符의 《萬曆野獲編》 19권 <台省>에 수록되어 있다.

36) 成化는 明 成化帝 憲宗 朱見深(1447-1487) 때의 연호로, 1465년부터 1487년까지 23년간 사용되었다. 弘治는 明 弘治帝 孝宗 朱祐樞(1470-1505) 때의 연호로, 1488년부터 1505년까지 18년간 사용되었다. 嘉靖은 明 嘉靖帝 世宗 朱厚熜(1507-1567) 때의 연호로, 1522년부터 1566년까지 45년간 사용되었다.

<成弘嘉三朝建言>

成化間, 一御史建言順適物情, 云, “近京地方, 行役車輛, 騾驢相雜. 騾性快力強, 驢性緩力小. 今竝一處驅馳, 物情不便, 乞要分別改正.”

弘治初, 一給事建言處置軍國事, 云, “京中士人好着馬尾襯裙, 因此官馬被人偷拔鬃尾 有誤軍國大計, 乞要禁革.”

嘉靖初, 一員外³⁷⁾建言崇節儉以變風俗, 專論各處茶食鋪店所造看卓³⁸⁾糖餅, “大者省功而費料, 小者料小而費功, 乞要擘畫定式, 功料之間, 務在減省, 使風俗歸厚.”

[評]

[極小文章, 生扭在極大題目上. “肉食者鄙”³⁹⁾, 信然!]

2.6. <송라강>⁴⁰⁾

경력慶歷 연간에 한 무관이 후궁에 침입해 소란을 일으켰는데 얼마 되지 않아 붙잡혀 죽었다. 당시 어사대御史臺 관원 송희宋禧가 진언하길 “이는 수비를

37) 員外: 원위는 員外郎으로, 정원 이외로 충원되는 郎官을 말한다. 晋代에 員外散騎侍郎은 황제를 측근에서 모시는 신하였고 隋代에는 尙書省 二十四司에 한 명씩을 배치하여 각 부서의 차관업무 맡겼다. 이 관직이 후대까지 이르러 明清 때는 각 부서에 郎中·員外郎·主事를 두었다.

38) 看卓: 看桌이라고도 하는데 과일 안주가 놓인 상급 술자리를 말한다.

39) 肉食者鄙: 이 말은 《左傳》 莊公 十年에 “고기를 먹는 신분이 높은 사람은 생각이 짧아 원대한 계략을 내놓지 못한다.(肉食者鄙, 未能遠謀)”에서 인용하였다. 肉食은 당시 매일 고기를 먹었던 大夫 이상의 관료를 이르는 관용적 표현이었다.

40) 이 이야기는 北宋 魏泰(?-?, 字 道輔)의 《東軒筆錄》 권12에서 볼 수 있다. “慶歷 연간에 호위무사가 반란을 일으켜 후궁을 놀라게 하여 수색하여 체포해 죽였다. 당시 어사대의 관원 宋禧가 진언하길, “이는 평소 방비를 소홀히 하여 생긴 일입니다. 신이 듣기로 蜀에 羅江狗라는 개는 털이 붉고 꼬리가 작은데 귀신처럼 경계한다고 합니다. 바라옵건대 그 개를 궁궐에서 기르고 창고를 경비하는 병졸로 하옵소서.”라고 하자 세간에서 그를 ‘宋羅江’이라고 불렀다.(慶歷中, 衛士有變, 震驚宮掖, 尋捕殺之. 時臺官宋禧上言: “此蓋平日防閑不至, 所以致患. 臣聞蜀有羅江狗, 赤而尾小者, 其儼如神. 願養此狗於掖庭, 以警倉卒.”時謂之宋羅江.)”

얹고 방비를 게을리 한 틈을 타 생긴 일입니다. 듣자 하니 촉蜀 나강羅江⁴¹⁾이라는 개는 털빛이 붉고 꼬리가 작는데 경계를 귀신같이 한다고 합니다. 모름지기 조서를 내려 그 개를 찾아 후궁에서 길러 불의의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당시 사람들은 그를 일러 ‘송라강宋羅江’이라 불렀다.

[풍몽룡 평어]

[무릇 쉬지 않고 짚어대는 개는 모두 나강의 개 때문인데 하필 송나라 사람처럼 헤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가?]

<宋羅江>

慶歷⁴²⁾中, 衛士⁴³⁾震驚宮掖⁴⁴⁾, 尋捕殺之. 時臺官宋禧上言, “此失守於防閑故耳. 聞蜀羅江狗, 赤而尾小者, 其儼如神. 須詔索此狗, 參於掖庭, 以備倉卒.” 時號爲宋羅江.

[評]

[凡亂吠不止者, 皆羅江也, 何必曰無若宋人然?]

2.7. <라금호와 장심용>

가정嘉靖 연간에, 도찰원都察院 라상羅相이 상소를 올려 “월주越州에 호랑이가 많으니 길에 덧을 많이 놓아 여러 방면에서 포획하여 사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정언正言 장차현張次賢도 상소를 올리길 “인반령人盤嶺은 황실과 이어진 지맥이니 행인을 금지해주십시오.”라고 하였다. 태학의 여러 학생들이 이에 “라금호羅擒虎, 장심룡張尋龍”이라고 대구를 지었다.

41) 羅江: 四川 북부의 縣으로, 지금의 四川省 德陽市에 속한다.

42) 慶歷: 宋 仁宗 趙禎의 연호로 1041년에서 1048년 동안 사용되었다.

43) 衛士: 대궐이나 관아, 군영 등을 지키는 무관을 가리킨다.

44) 宮掖: 황궁에서 後妃들이 거주하던 後宮을 말한다.

<羅擒虎張尋龍>

嘉靖中, 察院羅相⁴⁵⁾ 上言: “越州⁴⁶⁾ 多虎, 乞行下措置, 多方捕殺.” 正言張次賢⁴⁷⁾ 上言: “人盤嶺乃禁中來龍⁴⁸⁾, 乞禁行人.” 太學諸生遂有羅擒虎張尋龍之對.

2.8 <월령月令⁴⁹⁾을 인용하다>⁵⁰⁾

감연수甘延壽와 진탕陳湯이 이미 질지선우郅支單于의 목을 벤 뒤 청하길, 고가藁街 거리 오랑개가 머무는 객관에 목을 매달아 만리萬里에 보여 강성한 한

45) 察院: 都察院으로, 明清 시기의 政務 監察 기관이다. 원래 御史臺를 洪武帝가 바꾼 것이다. 중앙에는 監察都御使를 지방에는 監察御使를 두어 행정과 감찰을 맡겼다. 명대 중엽 이후로는 總督과 巡撫가 도어사를 겸직하면서 권력을 장악하였다. 羅相의 생애자료는 찾을 수 없다.

46) 越州: 월주는 會稽에 위치한 지역으로 지금의 浙江 紹興에 속한다.

47) 正言: 정언은 관직명으로 황제에게 간언하는 직무를 맡았다. 宋初에 左拾遺와 右拾遺를 左正言과 右正言으로 바꾸었는데 明朝도 이를 따랐다. 張次賢의 생애자료는 찾을 수 없다.

48) 禁中來龍: 풍수지리에서 용은 산을 뜻하고 來龍은 명당에 地氣를 실어나르는 주요 통로를 말한다. 본문에서는 지맥이 황궁(禁中)과 이어져 있다는 뜻이다.

49) <월령>은 《禮記》의 편명으로 夏曆 12개월의 계절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였다.

50) 이 이야기는 《漢書》 권 70 <陳湯傳>에서 더욱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이에 감연수와 진탕이 이렇게 상소를 올렸다. “신이 듣기에 천하의 大義는 마땅히 섞여서 하나가 되어야 하니 옛날에는 康과 虞가 있었고 오늘날에 강한 漢나라가 있습니다. 匈奴 呼韓邪 單于是 이미 北藩이라 칭했는데 郅支 선우가 반란을 일으켰으니 아직도 그의 죄를 굴복시키지 못하여 大夏의 서쪽은 강한 한나라의 신하가 될 수 없다고 여겼습니다. 질지 선우는 백성들에게 참혹하고 혹독하게 하여 그의 크나큰 악행이 하늘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에 신 감연수와 진탕이 의로운 병사들을 이끌고 하늘의 주살을 실행하였습니다. 폐하의 신령스러운 음에 힘입고 음양이 나란히 감응하였으며 하늘의 기운이 정명하니 진지를 함락시켰고 질지 선우와 名王 이하의 목을 베었습니다. 따라서 마땅히 오랑개가 머무는 槁街에 머리를 걸어두고 萬里에 보이셔서 강한 한나라를 침범하면 비록 멀리 있더라도 반드시 주살됨을 보여주십시오.” 이 일을 담당관리에게 내렸다. 丞相 匡衡과 御史大夫 繁延壽는 “질지 선우와 명왕의 머리는 여러 나라를 거쳤기에 오랑개들이 다 압니다. <月令>편에 이르길, ‘봄이면 백골을 매장하고 덮어야 할 시기이니 마땅히 걸어 놓아서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於是延壽, 湯上疏曰: “臣聞天下之大義, 當混爲一, 昔有康, 虞, 今有强漢, 匈奴呼韓邪單于已稱北藩, 唯郅支單于叛逆, 未伏其辜, 大夏之西, 以爲强漢不能臣也. 郅支單于慘毒行於民, 大惡通於天. 臣延壽, 臣湯將義兵, 行天誅, 賴陛下神靈, 陰陽並應, 天氣精明, 陷陳克敵, 斬郅支首及名王以下. 宜縣頭槁街蠻夷邸間, 以示萬裏, 明犯强漢者, 雖遠必誅.” 事下有司. 丞相匡衡, 御史大夫繁延壽以爲: “郅支及名王首更歷諸國, 蠻夷莫不聞知. <月令>春: ‘掩骼埋胔之時, 宜勿縣.”

漢 나라를 침범하면 비록 멀리 있더라도 반드시 주살 당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리시라 하였다. 승상 광형匡衡이 건의하길, “<월령月令> 편에서 봄에는 백골을 매장하고 썩은 시체를 덮어야 할 시기이므로 마땅히 걸어 놓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풍몽롱 평어]

[그러면 그들에게 선우의 목을 벨 시기가 언제인지 물어볼까? 가을 이후로도 형벌을 집행하는 법률에 맞지 않다고 할까 걱정이다.]

<引月令>

甘延壽, 陳湯旣斬郅支單于首⁵¹), 請懸頭藁街⁵²蠻夷邸間, 以示萬里, 明犯強漢者, 雖遠必誅. 丞相匡衡⁵³議, “《月令》: 春, 掩骼埋胔之時. 宜勿懸.”

[評]

[還問他斬郅支首是何時? 恐不合秋後行刑之律.]

2.9 <버드나무 가지를 꺾지 말라는 건의>

정이程頤가 강관講官에 있을 때였다. 하루는 강의를 마치고 퇴조하기 전에

51) 기원전 51년에 西漢 元帝(기원전 75-기원전 33) 때 흉노는 다섯 부족으로 분열되었다가 다시 남북으로 나뉘었다. 남흉노 呼韓邪(?-기원전 31) 單于是 한나라에 귀속되었고 형인 북흉노 郅支(?-기원전 36) 선우는 중앙아시아로 기반을 옮겼다. 당시 한나라의 西域都護府 副都護인 陳湯(?-?, 字 子公)은 都護인 甘延壽(?-?, 字 君況)을 설득하여 康居를 공격하여, 기원전 36년에 질지 선우를 무너뜨리고 그의 목을 가지고 한나라로 돌아왔다.

52) 藁街: 고가는 西漢의 도성인 長安에 있던 거리이다. 당시 蠻夷의 사신이나 상인들은 대부분 고가에 있는 객관에서 머물렀다.

53) 匡衡: 광형의 字는 雒圭이며 東海郡 承縣(지금의 山東省 棗莊市) 출신이다. 西漢 시대 丞相을 지낸 관리로, 집안이 대대로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생활하였으나 광형은 공부를 열심히 하여 관리가 되었고 《詩經》과 같은 경서를 잘 알았다.

임금께서 일어나 난간에 기대어 버드나무 가지를 꺾으며 장난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정이가 진언하길, “바야흐로 봄에 만물이 성장하니 아무 이유없이 꺾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께서 땅에 가지를 던져버리고는 즐거움을 잃어 그만두었다.

[풍몽롱 평어]

[맹부자孟子夫子를 만나면 재물을 좋아하고 여색을 좋아한다고 해도 괜찮다고 하였다. 정부자程夫子를 만나니 버드나무 가지를 조금만 움직여도 안 된다고 한다. 괴롭다, 괴로워!]

<諫折柳>

程頤⁵⁴⁾爲講官⁵⁵⁾. 一日講罷, 未退, 上偶起凭檻, 戲折柳枝. 頤進曰: “方春發生, 不可無故摧折.” 上擲枝於地, 不樂而罷.

[評]

[遇了孟夫子, 好貨, 好色都自不妨. 遇了程夫子, 柳條也動一些不得. 苦哉, 苦哉!]

2.10 <인재가 용안을 살피다>⁵⁶⁾

당唐 숙종肅宗 때 처음으로 현명하고 어진 인재를 불렀는데 한 징군徵君이

54) 程頤: 앞의 14번 주석 참조.

55) 講官: 강관은 황제에게 경전과 사서를 강론하는 관리로 侍講 혹은 侍讀이라 한다.

56) 이 이야기는 五代 王仁裕(880-956)가 편찬한 《玉堂閑話》의 卷2 <徵君>과 《太平廣記》 卷260 <嗤鄙三·徵君>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 편 모두 완전히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대체로 유사한 내용이다. 다음 《태평광기》에 수록된 원문을 참고해볼 수 있다. “唐 肅宗의 시대에 어진 인재가 시급히 필요하자 황제께서 조서를 내려 산림과 초야를 다 뒤져 재주와 덕행을 지닌 시국을 바로잡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 자가 있으면 모두 벼슬을 내리고 임무를 맡기겠다고 하였다. 靈武에서 온 한 징군이 草衣를 입고 짚신을

처음으로 응하였다. 임금께서 대단히 기뻐하며 불러 마주하셨다. 그런데 징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러 번 용안을 올려다보다가 갑자기 “소신에게 견해가 있사운데 폐하께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라고 하였다. 임금께서 “모르오.”라고 하자 대답하길, “신이 보기에 용안이 영무靈武에 계실 때보다 수척해지셨습니다.”라고 하였다. 임금께서 “밤낮으로 일하다 보니 이 지경이 되었소.”라고 하자 온 조정 대신들이 크게 웃었다. 숙종도 그가 황당무계한 사람임을 알았지만 어진 인재를 등용하는 길이 막힐까 걱정되어 현령 자리에 제수하였다.

[풍몽룡 평어]

[온 조정의 관리들은 황제가 살이 쯤는지 말랐는지를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자가 더 현명하고 어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현령이 된 뒤에 도리어 백성들이 살이 쯤는지 말랐는지를 신경 쓰지 않을까 걱정이다.]

<賢良相面>

唐肅宗⁵⁷)時初詔賢良⁵⁸), 一徵君⁵⁹)首應。上極喜, 召對。無他詞, 但再三瞻望上

신은 채 수도의 성문에 이르렀다. 肅宗이 이 일을 듣고 기뻐하며 “과연 어진 선비가 초빙에 응하였구나.”라고 하고 불러서 마주 대하였다. 당시의 나라 안에서 벌어진 사건의 득실을 물었는데 징군이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다만 용안을 여러 번 바라보다 아뢰길 “소신이 문 바가 있는데 폐하께서는 그것을 아시는지요?”라고 하자 대답하길, “모르오.”라고 하였다. 다시 아뢰길 “신이 폐하의 용안을 보았는데 靈武에 계실 때보다 수척해지셨습니다.”라고 하자 황제가 “밤낮으로 일을 하니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라고 하였다. 곁에 있던 신하가 웃음을 참지 못하였다. 징군은 퇴조할 때가 되었으나 더 말을 하지 않았다. 황제는 그가 황당무계한 사람임을 알았지만 어진 인재들의 길을 막을까 염려되어 어쩔 수 없이 그를 邑宰에 제수하였다. (唐肅宗之代, 爭於賢良, 下詔搜山林草澤, 有懷才抱德及匡時霸國者, 皆可爵而任之。有徵君自靈武, 衣草衣, 躡芒屨, 詣於國門。肅宗聞之喜曰: “果有賢士應募矣。”遂召對, 訪時事得失, 卒無一辭。但再三瞻望聖顏而奏曰: “微臣有所見, 陛下知之乎?” 對曰: “不知。”奏曰: “臣見陛下聖顏, 瘦於在靈武時。”帝曰: “宵旰所勞, 以至於是。”待臣有匿笑不禁者, 及退, 更無他言。帝知其妄人也, 恐閉將來賢路, 電勉除授一邑宰。)

57) 肅宗: 숙종은 唐 玄宗(685-762)의 셋째 아들 李亨(711-762)이다. 첫 이름은 李嗣升이었고 李凌, 李瓌, 李紹로 고쳤다. 安祿山의 난 때 현종과 함께 蜀 땅으로 피난을 가던 도중 靈武에서 스스로 황위에 올라 10대 황제가 되었다.

58) 詔賢良: 漢 文帝 때 조정에서는 각 지역에서 덕행이 있는 인사를 추천하게 하였다. 황제는 이들을 불러 관직을 맡겼으니 이를 ‘詔舉賢良方正’이라 하였다. 이후 후대에서도 이와 같은

顔, 遽奏曰: “微臣有所見, 陛下知不?” 上曰: “不知.” 對曰: “臣見聖顔瘦於在靈武⁶⁰⁾時.” 上曰: “宵旰所致耳.” 舉朝大笑. 帝亦知其爲妄人, 恐塞賢路, 乃除授一令.

[評]

[舉朝官員, 還有不管皇帝肥瘦的. 此賢良較勝, 只怕作令後, 反不管百姓肥瘦耳.]

3. 나가며

지금까지 《고금담개》 <우부부>의 70편 가운데 서문의 성격을 가진 글과 1-10까지의 작품을 번역하고 주해를 하였다. 재야의 인사의 이야기를 담은 마지막 편을 제외하고, 나머지 9편의 주요 인물은 재상, 간의, 어사, 급사, 원외랑 등의 관리였다. 풍몽룡은 ‘우부’ 즉, 고지식함이라는 주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관리들의 일화를 소개하였는데, 주로 직분에 맞지 않는 언행을 골라 수록하였다. 비록 풍몽룡이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수록된 이야기는 대체로 《맹자》, 《한서》, 《학림옥로》와 같은 고대 원전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원전과 비교하였을 때 내용은 큰 차이가 없지만 소화라는 장르의 특성에 맞추어 간결하게 각색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함축적이고 풍자성을 띤 평어를 추가하여 독자들이 진부하고 고지식한 관리들의 모습을 곧바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원문을 다시 생각하고 고민하여 독자 스스로의 감상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인재 모집 제도를 시행하였다.

59) 徵君: 징군은 조정에서 초빙하였으나 거절하고 있는 재야의 인사를 부르는 존칭이다. 징군은 대부분 자신들이 명예나 이익을 탐하지 않는 청렴한 인물임을 과시하려고 일부러 초빙을 거절한다. 그런데 본문에서 한 징군이 초빙에 응하자 숙종이 기뻐한 것이다.

60) 靈武: 영무는 지금의 陝西省 靈武縣 西南으로, 숙종이 재위에 오른 지역이다.

< 參考文獻 >

- 馮夢龍 編著, 饒保群 點校, 《古今譚概》, 北京: 中華書局, 2018.
- 高洪鈞 編著, 《馮夢龍集箋注》, 天津: 天津古籍出版社, 2006.
- 孟子, 楊伯峻 譯注, 《孟子譯注》, 北京: 中華書局, 2015.
- 韓非子, 唐敬昊 註, 《韓非子》, 上海: 商務印書館, 1930.
- 楊伯峻 編著, 《春秋左傳注》, 北京: 中華書局, 2000.
- 班固, 《漢書》, 北京: 中華書局, 1975.
- 范曄, 《後漢書》, 臺北: 中華書局, 1966.
- 李昉 等編, 《太平廣記》北京: 中華書局, 1994
- 魏泰, 《東軒筆錄》, 臺北: 藝文印書館, 1966.
- 江少虞, 《宋朝事實類苑》, 上海: 上海古籍, 1981.
- 羅大經, 《鶴林玉露》, 臺北: 藝文印書館, 1966.
- 沈德符 撰, 楊萬里 校點, 《萬歷野獲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2.
- 張鷟, 《朝野僉載》, 臺北: 商務印書館, 1966.
- 田汝成 撰, 《西湖遊覽志餘》, 臺北: 世界書局, 1963.
- 高洪鈞, <馮夢龍的俗文學著作及其編年>, 天津師大學報(社會科學版), 1997.

< Abstract >

An Annotated Translation of *Gu wen tan gai · yufu*

Kim, Sookhyang

Gu wen tan gai(古今譚概) is a collection of Xiaohua(笑話) compiled by Feng Menglong(馮夢龍). Feng Meng-long is a writer who lived in the late Ming and early Qing dynasties. As it is known, he made great achievements in ancient Chinese folk literature. In particular, he compiled and collected Xiaohua that had been passed down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He also took stories

from ancient scriptures, edited them, and put them in this book. As such, Feng Meng-long contributed greatly to the compilation of the Xiaohua.

This paper translated and annotated works from 1 to 10, including the introduction, among the 70 of yufu(迂腐), the first of *Gu wen tan gai* (古今譚概). Except for the last episode, all of the other nine major figures were bureaucrats. He selected and introduced anecdotes from officials who could highlight the topic of 'hackneyed'. He mainly focused on stories where officials spoke words and actions that did not fit their position. These 10 Xiaohua have already been recorded in several ancient Chinese original texts, including *Meng zi*(孟子), *Han shu*(漢書), *He lin yu lu*(鶴林玉露). Although, he did not reveal from which source he was quoted, but it was not difficult to find the source in most cases. What is clear is that he has concisely adapted the original text to fit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nre of Xiaohua. Also, he added implicit and sarcastic criticism. And from that, although the readers might not immediately understand the appearance of the hackneyed officials. But they could have their own interpretation and appreciation because they had to think carefully to realize it.

Key words: Xiaohua(笑話), *Gu wen tan gai*(古今譚概), yufu(迂腐), Feng Menglong, *Gu jin xiao*(古今笑), joke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20. 07. 30	2020. 08. 11 -08. 24	2020. 08. 21	2020. 09. 02	2020. 09. 30

